대-중소기업 이익률 양극화의 실상

최근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존재하며 그 정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있어왔다. 그렇지만 수직적 거래관계의 비중이 큰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현황을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검토해 보면 대기업과 1차 하도급 기업 간에 이익률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며 대기업의 이익률이 큰 변동성을 나타낸 반면 1차 하도급기업의 이익률 변동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

□ 최근 언론에서 위탁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의 이익률 격차가 큰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, 수직적 거래관계의 비중이 큰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는 이익률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.

- 2001-2010년 기간에 자동차산업 위탁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약 0.6~0.8%포인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- 동기간 중 조선산업의 경우에 협력 중소기업이 위탁 대기업에 비해 다소 높은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실현하고 있음.

<표 1> 위탁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변화추이 (단위: %)

		대기업	전체협력기업	중소협력기업
자동차산업	2001-2005	5.08	4.72	4.26
	2006-2010	4.41	3.72	3.58
	2001-2010	4.69	4.12	3.84
조선산업	2001-2005	3.17	5.87	6.17
	2006-2010	8.68	7.91	7.80
	2001-2010	7.03	7.30	7.30

자료: 이병기, 『대기업 성장의 협력기업 낙수효과 분석: 자동차·조선 산업을 중심으로』, 한국경제연구원, 2012.7

- 출자총액제한기업 등 대기업 계열기업을 배제한 전체협력기업의 이익률은 위탁대기업의 이익률과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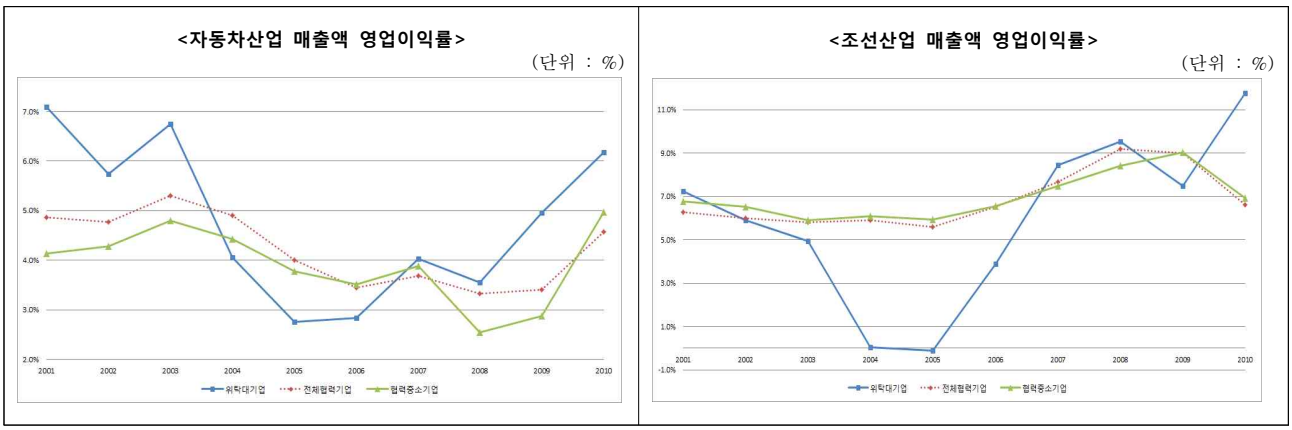
○ 오근엽(2012)에 따르면 자동차산업에서 계열사인 협력업체들의 평균이익률은 완성차 업체의 이익률 보다도 더 높았던 반면, 비계열사인 협력업체들의 평균이익률은 훨씬 낮았다고 지적[1)]

○ 그러나 비계열사 협력업체로 구성된 전체협력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자동차산업 및 조선산업에서 대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그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
□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 위탁 대기업은 큰 폭의 이익률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으나, 1차 협력기업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인 이익률 변화패턴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임.

– 우리나라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의 1차 협력기업의 이익률은 일본의 하도급 기업과 마찬가지로 위탁 대기업에 비해 안정적인 추세를 나타내며, 이것은 위탁 대기업과 1차 협력기업 간에 위험공유가 현실의 부품소재 거래관계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줌.

<그림 1> 자동차산업 및 조선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변화추이(단위: %)



– 최근 자동차산업에서는 대기업의 이익률 증가에 따라 협력 중소기업의 이익률이 증가하고 있으며, 조선산업의 경우에도 협력 중소기업의 이익률이 대기업 이익률 증가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
– 다만, 2009년 협력 중소기업의 이익률은 낮아진 것은 2009년 중소 조선사를 중심으로 조선산업이 심각한 부실상태에 있었기 때문임.

1) 오근엽, “경제민주화, 과연 포퓰리즘인가,” 『한국일보』, 2012.8.13.